

다들 드디어 의망을

www.womenfund.or.kr 2015

6호

기획

여성공간 속에 담긴 변화의 힘

나눔과 공감

여성과 아이들이 배려받는 사회를 위하여
기부자라는 자부심을 드리는 일

함께 만드는 변화

태권소녀들의 베트남 외가방문



따뜻한 희망을



지난 10월22일, 공간문화개선사업으로 새롭게 단장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의 오픈식날, 한국 여성 대표를 비롯한 회원들이 함께 모였다. (사진: 윤강수작가, 재능나눔)

2015. 6호

홈페이지 www.womenfund.or.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kwomenfund
 트위터 twitter.com/womenfund
 해피로그 happylog.naver.com/womenfund.do

발행인 이해경 이사장
 편집인 박기남 사무총장
 기획편집 기획홍보팀
 발행일 2015년 11월 30일
 등록번호 마포마00061
 발행처 (재)한국여성재단
 (0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 (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전화 02-336-6364
 팩스 02-336-6459
 후원 농협 369-17-005283
 국민 079-01-0405-971 (한국여성재단)
 디자인 도서출판 산티 02-3143-63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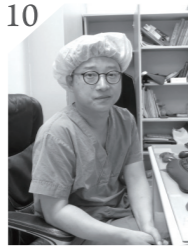
Contents

08



03 사립문
 투명하고 꼼꼼하게,
 기부자님의 믿음에 답하겠습니다
 이해경_한국여성재단 이사장

10



04 기획 여성공간 속에 담긴 변화의 힘
 변화의 힘, 공간에서 만들 수 있어
 공간의 주인공은 사람이죠
 공간을 바꾸다, 사람이 바뀌다

15



10 나눔과 공감
 여성과 아이들이 배려받는 사회를 위하여
 기부자라는 자부심을 드리는 일

21



14 함께 만드는 변화
 태권소년들의 베트남 외가방문

16 소식
 재정보고
 후원현황
 재단소식

23 2015 창립기념 후원의밤
 엄마에게 희망을

사립문

투명하고 꼼꼼하게, 기부자님의 믿음에 답하겠습니다

가을이 벌써 겨울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모든 여성이 인간으로 존중받는 세상”을 다짐하며 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것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일 년이 다 되어갑니다.

2015년 한국여성재단은 두 가지 바람이 있었습니다. ‘더 많은 기부자님들을 만나고 더 친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한국여성재단 대표적 모금캠페인 100인 기부 릴레이에 5천5백 명이 넘는 분들이 참여하셨습니다. 130명의 이름이 기부자님들이 바로 여성재단의 홍보대사이자 모금가로 활동해 주신 결과입니다. 또한 파트너기업들의 후원과 단체들의 참여가 많은 중요한 사업들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두 번째 소망은 기부자님이 믿고 기부하실 수 있도록, 보람을 느끼게 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기부자님 한 분 한 분을 다 찾아뵙고 감사인사와 사업성과를 전해 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 늘 송구합니다.

대신 ‘여성재단에 기부하기를 잘했다!’고 생각하실 수 있도록 임원과 직원들은 기부금을 투명하고 알뜰하게,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생각하며 꼭 필요한 곳에 쓰려고 애썼습니다.

한국여성재단은 지난 9월에 삼일투명경영대상 전체 대상을 받았습니다. 삼일미래재단이 주관한 이 상은 국내 비영리법인이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상입니다. 재단은 회계투명성 뿐 아니라 효율적인 운영방식, 사업의 체계적 성과관리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5 대한민국 지속가능성대회 지속가능보고서 중소기업·비영리부분 최우수상도 받았습니다. 한국표준협회가 올해 처음으로 비영리부문을 심사에 추가하였고 한국여성재단이 첫 수상자가 된 것입니다.

두 상 모두 한국여성재단 설립 비전과 미션하에 고 박영숙이사장님, 조형이사장님, 그리고 기부자 여러분의 한결같은 마음과 참여의 결과입니다. 더 잘하라는 격려와 함께 무엇보다 재단의 오랜 노력이 공식적으로 인정 받은 것이어서 무척 기쁩니다.

변화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은 더욱 어렵습니다. 모든 여성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드는 일은 내년에도 더 많은 나눔과 실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16년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계획, 그 목록 중 하나에 한국여성재단과 함께하는 ‘나눔 실천’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늘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W**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이해경

여성공간 속에 담긴 변화의 힘

공간문화개선사업은 여성생활이용시설과 여성단체활동공간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단체들이 원하는 꿈의 사업이다. 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이 후원하는 이 사업은 2009년부터 올해까지 총 96개 단체가 이 사업에 선정되어 공간이 새롭게 변화했다. 이 공간은 활동가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곳에서 어떤 꿈을 그렸는지 들어보았다.(편집자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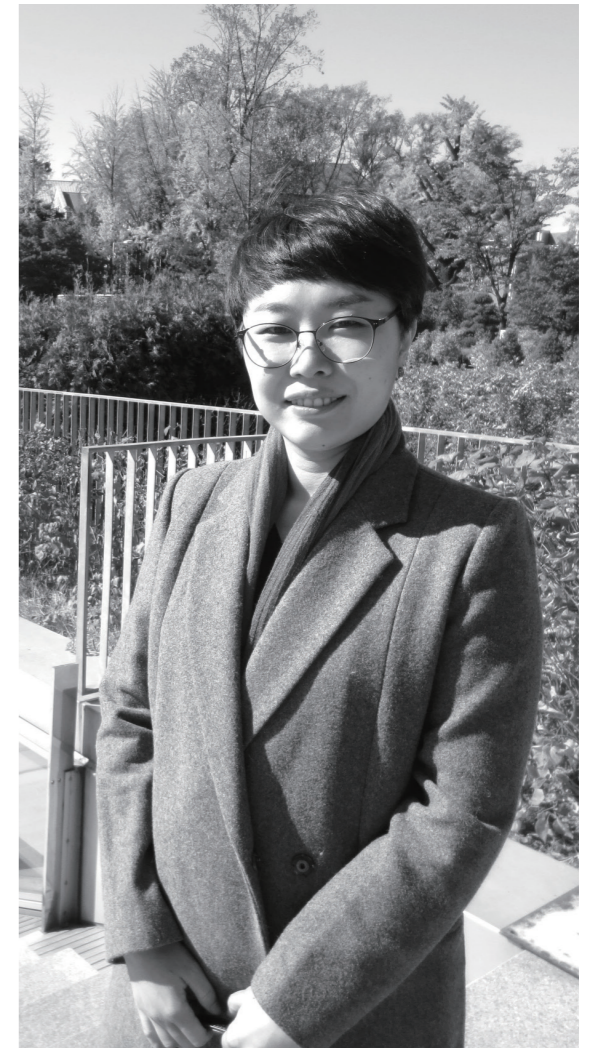
변화의 힘, 공간에서 만들 수 있어요

〈2015 공간문화개선사업〉이 시작되면서 가장 바쁜 날들을 보낸 젠더공간연구소 장미현 소장. 그는 신청서류들을 심사하고 전국 곳곳의 단체들을 방문해 활동가들을 만나 신청이유를 직접 듣기도 했다. 어느덧 공사가 마무리되고 단체들의 오픈식이 이어지는 10월말, 장미현 소장을 만났다.

올해부터 사업명을 시설개선에서 공간문화개선으로 바꾸었다. 그 의미는?

작년, 이 사업의 연구보고서를 담당했는데 주요한 성과로 정리된 내용이 있다. 시설개선사업은 눈에 보이는 형태의 변화, 예를 들면 화장실 등을 깨끗하게 보수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우선적이다. 하지만 이 사업은 활동가 여러분이 신청서를 내고 도면을 보며 직접 어떻게 변화하고 싶은지 스스로 공간을 재정의하고 디자인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공간은 물론 공간문화도 변화시키는 주요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공간문화개선사업이 더 적합한 사업명이 아닌가 싶다.

공간은 많은 얘기를 한다.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사람들 인식에도 많은 변화를 준다. 예를 들어 대형마트 주차장을 가보면 일반 주차공간보다 넓은 여성전용우선주차공간이 있다. 어린이를 보통 여성들이 동반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배려라고 보인다. 하지만 오히려 돌봄을 주로 하는 사람은 여성이다라는 성역할을 고착화 시킬수 있다. 시흥시는 성별을 구분하는 용어대신 구체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주차장으로 이름을 바꿔 시행하고 있다. 용어 하나에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다. 공간변화는 당장의 불편함을 해소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다. 여성들만 아니라 남성들이 혼자 아이를 데리고 다녀도 편하고 남성들도 아이를 데리고 화장실에 가서 기저귀를 갈아줄 수 있는 공간, 그 의미가 더 중요한 것이다.

❶ 공간문화개선사업 연구위원으로 전국의 여성단체를 방문하여 하신 일은?

그동안 공간이 젠더와 어떤 관계가 있냐를 연구하거나, 공공기관에서 건축담당자 대상으로 교육을 주로 해왔었는데, 민간영역 분야는 처음이었다. 이용하는 분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야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직접 방문해서 활동가들을 만나 원하는 공간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다.

단체들의 공간컨설팅을 했다. 단체가 주로 하고자 하는 활동이 무엇인지, 대규모의 교육활동공간을 원하면 입식보다는 이동 가능한 좌식으로, 한 공간을 자바라로 나눠 두 가지 활동을 하고 싶다고 하면 과감하게 벽을 세워 두 가지 활동을 다 할 수 있도록 제안하기도 했다. 어린 아이들이 많이 오는 경우라면 벽을 하얀색으로 칠할 경우, 금방 때가 탄다. 그러면 벽지로 바꿀 수 있는지도 협력업체에 문의도 한다. 어떤 용도인지를 구체적으로 묻고 단체의 요구와 인테리어협력업체 사이에서 중재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단체활동가가 필요로 하는 공간에 대해 정확한 컨셉을 정하고 효율적으로 공간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라고 보면 된다.

❷ 단체활동가들의 가장 큰 고민은?

우선 너무들 좋아하셨다. 대부분 지역 단체들은 회원들의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곳이다보니 어려운 곳이 많았

다. 그러니 시설은 더욱 고칠 엄두를 내지 못했던 거다. 새로운 공간에 대한 기대들로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해야 할 것 같고 다들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 물론 고민들을 다 반영하면 좋겠지만 우선은 공간이 너무 협소했다. 다시 이분들은 머리를 맞대고 이 한정된 공간에서 꼭 하고 싶은 활동은 무엇인지를 의논했다. 그것이 결정되면 활동을 위해 최적화된 공간에 대한 디자인에 들어갔다. 대부분 상담실이나 교육실, 그리고 수납공간을 많이 필요로 했다.

❸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한 바람이 있다면?

회원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어서 갔는데 공간이 지저분하고 좁고 그러면 가고 싶지 않은 것처럼 지역단체들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는다.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 활동가들도 지치고 회의도 든다.

그런데 이 사업을 통해 사람들이 찾아오고 회원들도 늘게 되는 꿈을 꾸다. 이 사업은 단체들이 꿈꿀 수 있고 실현하고 또 꿈을 꿀 수 있게 한다. 무엇보다 일하는 사람들의 자존감을 높여주었다. 내가 일하는 곳이야, 우리 사무실 놀러와! 라고 누군가를 초대할 수 있다는 건 너무 즐겁지 않은가. 단체와 활동가들의 역량을 높여주는 중요한, 꼭 필요한 사업이다.

❹ 소장님이 만들어보고 싶은 공간이 있다면?

지역단체들의 경우, 공간이 협소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힘든 여건에 있다.

작은 단체들이 함께 쓰는 공동교육장 같은 게 있으면 어떨까. 지역단체들의 아지트 같은 공간. 한번 꿈꿔봐도 좋을 거 같다. **W**

공간의 주인공은 사람이죠

올해 공간문화개선사업에 선정된 단체들이 하나 둘씩 리모델링을 끝내고 오픈식을 진행 중이다. 지난 10월22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오픈식날, 이 사업의 오랜 파트너기업 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의 신찬호국장을 만났다.



공간은 원가를 만들어어나가는 곳

“세상일은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된다고 합니다. 공간문화개선사업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을 이뤄지도록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잘 될 거라고 되뇌며 많은 일을 하길 바랍니다.” 짧은 인사말 속에 이 사업의 의미를 전한 신찬호 국장.

그는 여성재단과 파트너십을 맺기 전부터 직접 이 사업을 위해 현장을 뛰었던 베테랑이다. “공간을 보면 어떻게 하는 게 적절한지 판단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용자분들은 아무래도 욕심이 나죠. 티비도 놓고 가구도 놓고 싶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공간이 사람을 지배해선 안된다고 생각해요. 공간이 사람을 도와줘야 하죠.” 많은 것이 갖춰진 곳이 아니라 ‘원가를 만들어어나가는 곳’이 공간이라고 말한다.

2014년, 사업 5년차를 맞이하면서 신국장은 ‘우리가 이 사업을 왜 하는가’라는 질문을 다시 스스로에게 던졌다. 하고자했던 목표대로 가고 있는지, 내년에는 그 목표를 위해 어떤 변화를 주어야 하는지 파트너인 여성

재단과 함께 머리를 맞댔다. 예산 증액과 더불어 사업명도 더 적절한 것으로 바꾸고 공간을 직접 이용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중요하게 여겼다.

여성공간에 대한 이해, 그리고 변화

“컨설팅에 좀 더 무게를 두었어요. 공모신청서에 공간에 대한 활용계획서를 받고 있죠. 전에는 어떻게 고치고 싶으세요? 라고 물었다면 지금은 어떻게 쓰고 싶으세요? 라고 묻는 거죠.”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무엇보다 변화의 주체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의 생각이 담겨야 한다고 그는 강조한다. 이 사업을 통해 여성공간에 대한 이해도 좀 더 깊어졌다는 신찬호 국장. 내년에는 또 어떤 변화와 함께 이 사업이 시작될지 기대가 생긴다.

마지막으로 그는 새로운 공간의 주인공 여성들에게 응원메시지를 남겼다. “마음이 아픈 분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적절한 상담을 통해 치유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봉사를 하러 오시는 분들의 좋은 기운이 가득 찬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차게 하고 싶은 일들 잘 하시길 응원합니다.” **W**

공간을 바꾸다, 사람이 바뀌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15 공간문화개선사업>의 지원을 받아 공간을 바꾼 단체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다. 공간 개선 후 다양한 변화의 기운이 감지되고 있다. <원주여성민우회>와 <십대여성인권센터>를 찾아가 새로운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원주여성민우회>

강원도 원주시의 유일한 여성단체 원주여성민우회는 사람을 몇 번씩 놀라게 했다. 처음에는 3년 전 어느 고등학생이 장학금 전부를 원주여성민우회에 기부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랐다. 이 정도로 좋은 평가를 받는 단체의 사무실을 보고 또 한 번 놀랐다. 원주시 교통의 요충지인 도심에 낡고 냉난방 시설도 없는 열악한 공간이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교육장이 여의치 않아 적합한 공간을 찾아 보따리장수

처럼 이곳저곳을 찾아다녔다. 그러다보니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었다. 빠듯한 운영비로 공간개선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원주여성민우회는 <2015 공간문화개선사업>에 단체의 온 사활을 걸었다. 단체의 미래의 비전을 세우고 다양한 세대가 소통하는 원주여성민우회로 재탄생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었기 때문이다.

“장소 고민을 안 해도 되니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원주여성민우회 공간개선 소식은 원주 시민사회

를 들쭉거리게 만들었다. 원주에 있는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공사 단계부터 궁금해서 찾아오고, 오픈식에 원주 시장이 참여할 정도로 원주 전체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지역사회의 관심만큼 원주여성민우회 포부도 남다르다. 이제는 꿈꾸는 것을 전부 해볼 수 있다며 심재희 사무국장과 김현숙 사무차장이 하고 싶은 일을 줄줄이 늘어놓는다. 내년에 성폭력예방강사 양성교육을 처음으로 시작한다. 지금까지 여건이 맞지 않아 못했던 일이다. 요리, 바느질 등 주부들의 재능나눔 공간도 운영하려고 한다. 벌써 솜씨 좋은 회원과 함께 양말인형 만드는 시간을 가졌다.

자체 공간이 없는 단체에게도 공간을 개방할 생각이다. 학부모지원센터에 학부모 소모임 장소로 교육장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한 상태이다. 대안 공간 개소식과 간담회에 참석한 원창묵 원주시장도 지원을 약속했다니 이래저래 일이 많아질 전망이다. 그래도 두 활동가는 신나 죽겠다는 표정이다. “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힘이 팍팍 나요.”

상담실 없이 상담했던 <십대여성인권센터>

십대여성인권센터의 사이버포래상담원(이하 사·또)은 인터넷성매매방지 전문가들이다. 사·또는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청소년에게 먼저 대화를 시도하는 ‘찾아가는 상담’을 한다. 성매매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돕기 위한 일이다. 청소년들과 사이버상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원하면 대면상담도 한다. 대면상담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십대여성인권센터에는 상담

실이 없었다.

공간문화개선사업으로 이번에 사무실에 벽을 쌓아 상담실을 만들었다. “전에는 주로 카페에서 만났어요. 사무실이 아닌 곳에서 만나자고 하면 의심을 해요. 약속을 해도 안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힘들게 만났는데 남이 들을까봐 깊이 있는 대화도 쉽지 않았고요.” 카페가 아닌 사무실에서 만나자고 하면 아이들의 믿음이 이전보다 커진 것을 느낀다고 사·또들은 입을 모은다.

상담실 덕분에 초기 대면상담이 쉬워지고 내담자들이 안정감과 신뢰감을 느껴 지속상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다. 더불어 사·또들의 역량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사·또의 역량강화를 위해 독서토론, 심리상담, 소양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전에는 카페와 유관기관의 상담실을 돌아다니며 상담을 했었는데, 이젠 그러지 않아도 된다.

“일하다가 밖으로 안 나가도 되니 편하고, 주위 눈치 보지 않고 이야기 할 수 있어 편안해요. 심리 상담을 카페에서 할 때는 색연필, 잡지 정도만 활용하는 것이 아쉬웠는데 지금은 다양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어 좋아요.” 상담실은 사·또들이 청소년들을 만나고 공부하고 때로는 쉬기도 하면서 능력을 키우는 곳이다. <2015 공간문화개선사업>은 사·또들의 성장 역시 돕고 있다. **W**

글 송재금(고공세)

*고공세(고갯마루에 선 곰 세마리)는 세상과 소통하는 글, 삶을 가꾸는 글쓰기를 지향합니다.

여성과 아이들이 배려받는 사회를 위해

여성재단의 오랜 기부자인 노정섭님. 울산병원 마취과 의사인 그는 초등학교 두 딸을 둔 아버지다. 울산하고도 남구청을 지나 울산병원 앞에서까지도 괜찮았는데 수술실 안 한쪽 사무실에서 기부자님을 만나는 건 조금 용기가 필요했다.



큰 딸아이가 태어나고 시작한 기부

레지던트를 마치고 울산에 온 게 2005년이거든요. 원래 고향은 부산인데 서울에서 레지던트를 했어요. 아내의 직장이 울산에 있어서 이곳으로 오게 되었지요. 큰딸이 태어나고 나서 기부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정확하게 언제부터 했는지는 기억이 나질 않네요. 아마 방송을 보고 한 건 아닌 거 같아요. 어린이를 지원하는 곳과 여성재단에 기부를 같이 시작했는데, 딸아이가 태어나고 난후, 어린이와 여성을 위해서 기부를 하고 싶다고 자연스럽게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기부하는 곳을 세 곳으로 늘려서 더 하고 있어요.

배려가 익숙한 사회를 위하여

레지던트로 일하던 중에 한 달 간 아내와 미국을 간 적이 있어요. 때마침 신혼기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몇 군데를 여행한 적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이니 여성과 아이들에게 대한 배려, 기본적인 생각이 몸에 딱 배어 있더라구요. 운전하다가 앞에 어린이가 보인다 그러면 무조건 천천히 가요.

스쿨버스가 앞에 가면 절대 추월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런 모습이 일상에 배어 있는 게 보였어요. 사실 결혼

하기 전에는 잘 안보였던 장면들이죠. 우리나라도 빨리 여성과 아이들이 배려받는 사회가 되어야 하는데 하는 생각을 막연하게나마 했던 거 같아요. 더 현실적으로는 울산으로 내려와 큰 딸아이가 태어나고 보니 그럼 나도 실천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부를 시작한 겁니다.

큰 딸 서영이, 작은 딸 소은이가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큰애가 열한 살, 4학년인데 올 겨울에 미국에 가게 됐어요. 자유로운 교육을 받아보면 좋겠다 생각이 있었는데 우연히 좋은 프로그램을 알게 되어서 보내게 됐어요. 1년 반 정도 다른 교육환경에서 한번 지내보고 오면 좋겠어요.

다시 한국에 와서 중학교를 다니도록 할 생각이예요. 아무래도 사춘기이기도 해서 힘든 일이 있더라도 부모와 지내는 것이 좋겠죠. 아이는 가기 싫다고 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다행히도 좋다고 하네요. 집에서 구속받고 있다고 생각했는지 원래 독립적으로 혼자서 뭘 하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아이를 잘 키우는 게 힘든 일이더라구요.

사회에 도움이 되고자 선택한 직업

수술은 한 달에 150~200건 정도 하니 많으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 직업을 선택한 이유는 대학 들어갈 때 면접을 보는 데 왜 의사가 되려고 하느냐고 면접관님이 물어보셨어요. 특별히 준비한 건 아니었지만 그때 제가 '지금까지 내가 공부할 수 있도록 부모님과 사회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그 도움으로 내가 이렇게 공부를 했으니 사회에 나가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직업을 갖고 싶었고 그래서 대를 간 거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요. 기부하는 것도 욕심을 좀 버리면 어렵지는 않던데요. 그렇게 특별하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사람들은 평균 연봉의 10%를 기부한다고 하더라구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죠. 저도 지금은 그렇지 못하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고 있으니까 곧 그렇게 되겠지요.

여성재단을 믿고 기부하겠습니다

여성재단이 하는 일을 자세히는 모릅니다. 근데 한국 여성재단을 선택한 이유는 우선 제가 얼마를 기부하든 그 돈을 단 곳에 쓰지 않고 써야 할 곳에 잘 쓰겠지 하는 믿음이 있어서입니다. 그래서 여성재단을 선택했고 지금까지도 계속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큰일이 없는 한 여성재단을 믿고 기부하겠습니다.

노정섭님에게 전화로 인터뷰 요청을 할 때 마침 가족들과 제주도 여행중이라고 했다. 곧 미국으로 떠날 큰딸과 당분간 떨어져 있어야 했던 까닭에 여유있게 늦여름 휴가를 가족과 함께 보냈던 것. 마지막으로 큰딸에게 하고 싶은 한마디를 부탁했더니 짧고 묵직하게 한마디를 전했다.

“서영아, 사랑해!” **W**

기부자라는 자부심을 드리는 일

100인 기부 릴레이 주자로 처음 여성재단과 인연을 맺었던 안강숙님. 이듬해는 완주호 이끔이로, 그리고 지금은 만만클럽모금캠페인 전화요청자로 나섰다. 어느 날은 기분 좋게, 또 어떤 날은 시무룩하게 그의 퇴근날씨는 맑았다가도 흐리다. 그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Q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요?

여성재단에서 필요로 하는 일이라고 해서 오긴 왔는데 전화로 기부를 요청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첫날, 첫 번째 전화를 하는데 등에서 땀이 흘렀어요 (그분은 거절하셨어요).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그랬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날은 설명을 제대로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기부를 선뜻 해주시겠다는 분도 있었어요. 이제는 등에서 땀이 나진 않아요.

Q 며칠 동안 터득한 기부권유매뉴얼이 있다면

우선은 여성재단이라고 말씀드리면 네에~ 네 하고 받아주세요. 기부를 요청하는 분의 직함이나 직책을 이름과 함께 부르면서 요청을 드리면 한결 부드럽게 받아주시는 것 같아요. 아침나절이나 퇴근 무렵에 전화는 되도록 하지 않구요. 한국 사람에겐 아침시간에 출근과 회의로 바쁘잖아요. 그 와중에 기부요청 전화를 받으면 자세히 듣기 어려워하세요. 요청도 생겼어요.

혹시나 바쁜 마음에 거절을 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면 사업 소개도 해드리면서 메일로 자료를 보내드리겠다고 말씀드려요. 읽어보시고 기부하실 마음이 생기면 연락을 달라는 말도 꼭 전하고요.

Q 누구도 쉽게 거절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100인 기부 릴레이 오랜 기부자인 왕인순이 꿈이의 주자였어요. 그 분이 저에게 기부약정서를 들고 와서 “한번 읽어보고 도와주실래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그리고 메일로도 기부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얼마나 모였는지, 그리고 감사하다는 내용도 함께요. 그러다가 작년과 올해 100인 기부 릴레이 이끔이로 나섰죠. 저 역시 노하우가 생겼어요. “당신에겐 만원이지만 어려운 분에겐 100만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기부자로서의 자부심을 드리는 거예요. 저금통을 주변분들에게 전할 때도 ‘여성재단에서 하는 거다’라고 말하면 흔쾌히 받아주시더라고요.

Q 이렇게 가까이 재단과 있으니 느낌이 어떠세요?

처음엔 딱딱한 관공서 느낌? 호호 그런데 들어와 보니 생각보다는 다들 편하게 대해주셔서 편하게 일하고 있어요. 말랑말랑한 파이같다고 할까요? 파이가 여러 개가 켜켜이 쌓여 있잖아요. 겉은 딱딱하고 두껍기도 하지만 또 안에는 얇고 말랑말랑하고. 재단 사람들도 보면 일할 때는 차갑게도 보이지만 조금만 얘기해보면 어떤 사람들보다도 좋은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관심도 가져주고. 다만 일 때문에 쉽게 소진할까봐 안타깝기도 해요. 저도 한창 일할 때 일중독자 같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여기도 만만치 않은 거 같아요. 그래서 엄마 같은 마음으로 보듬어주고 싶은 마음이지요. 딸 같기도 하고.

Q 두 딸이 있으시죠?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큰애 승원이가 스물 일곱, 둘째 승민이가 스물 셋이에

요. 갑자기 딸 얘기를 하니 눈물이 나네요. 어제 싸웠거든요. 엄마입장에서 걱정스런 마음에 한 말인데 상처가 됐나 봐요. 두 딸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서른아홉에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싶어 야간대학을 다녔어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 공부를 했지요. 남편이 제가 일하는 동안 집안일도 다하고 외조를 해주었어요. 남편은 친구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다 도와주고 지지해주고 싶어요. 요즘은 한 가지 직업으로 살기 힘든 시대잖아요. 하나를 선택해서 해보다가도 정말 이게 아니다 하면 다른 분야도 경험해보면서 공부도 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Q 여성재단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이번 만만클럽 기부요청을 하면서 살펴보니 정말 여성을 위한 단체들이 전국 곳곳에 많이 있더라고요. 여성재단이 이러한 단체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부요청을 더 잘해야 할 텐데. 기업을 만나 후원을 요청하거나 고객기부자를 만나 기부금을 이끌어내는 것은 어렵겠지만, 재미군단이라고 하죠? 소액이라도 기부를 해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모금 설명도 하고 기부자라는 자부심을 드리는 일. 그건 제가 잘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요즘 날씨가 차가워지는데 역 주변에 노숙자분들이 많이 눈에 띄어요. 이 분들이 올 겨울을 따뜻하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사무실 한 켠에서 ‘안녕하세요, 한국여성재단입니다’로 하루를 여는 기부자 안강숙님. 이번 딸들을 위한 모금캠페인으로 한층 더 여성재단과 가까워진 멋진 기부자다. W

태권소년들의 베트남 외가방문



지난 10월, 7박9일 동안 베트남을 다녀온 송은영님과 가족들은 다시 일상속으로 돌아왔다. 송은영님은 아이에게 외할머니가 있다는 것도, 엄마 나라의 풍경도 보여주고 싶었던 오랜 소원을 풀었다. 꿈만 같았던 여행. 엄마와 동생이 공항에 마중을 나와 준 그때를 생각하면 눈물부터 난다고 했다.

건강한 아이들, 배려해 준 남편 덕분

“반갑기도 했지만 미안함 때문에 울었던 거 같아요. 가족 모두가 함께 방문했던 건 처음이었거든요.” 큰딸 수민이는 어려서부터 몸이 약했고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도 둘째 수민이를 임신중이어서 장례식 참석도 못했다. 명절마다, 공주에 있는 시댁에 부모님 찾아 뵙는 건 이렇게 쉬운데 친정 한 번 가려면 너무나 많은 것들이 걸림돌로 다가오곤 했다.

지난 10월, 아홉 살 수민이와 일곱 살 지현이는 태권도

를 배울 정도로 튼튼하게 자라주었고 남편도 휴가일정을 베트남 방문 날로 맞춰준 배려로 꿈만 같던 일들이 이루어졌다. 선정되었다는 소식이 꿈만 같았고 여행준비에 살이 빠질 만큼 신경이 쓰였다. 여행을 다녀온 후에도 여전히 그 일은 꿈만 같았는데 다행히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들이 꿈이 아님을 확인시켜 주었다.

마침 학교와 어린이집을 다녀온 자매는 엄마의 휴대폰 사진들을 보자, 다시 외갓집을 간 것처럼 반가워했다. “할머니가 맛있는 것도 해주셨어요. 강아지가 막 쫓

아와서 신발이 벗겨져 버렸어요”라고 지현이는 기특하게도 금방 기억해냈다. 아이들이 처음 만난 사촌들과도 스스럼없이 동네를 뛰어다니고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와도 친해지는 걸 보며 송은영님은 이번 방문이 너무 만족스러웠다고 했다. 외할머니는 하루에 두 번씩 시장을 다녀올 정도로 분주하게 먹을거리를 챙겼고 사위와 아이들이 음식이 잘 맞을까 걱정했다. 밤에는 잠을 쫓아내며 딸과 지난날을 추억했다. “엄마도 힘드셨을 거예요. 하지만 언제 또 이렇게 만날지 모르니까...”라고 말끝을 흐렸다.

스물네 살, 응우엔티떤(송은영님의 베트남이름)은 여행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여행사에서 일하다보니 베트남으로 여행 오는 한국인도 자주 보고 대장금같은 드라마는 쉽게 볼 수 있어서 한국에 대한 친밀감이 있었다. 하지만 한국으로 결혼해 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정서적으론 가까웠지만 한국의 겨울, 평택은 낯설었고 정말 추웠다. 남편과는 언어라는 장벽에 막혀 자주 싸웠고 외로워지기 시작했을 때 막 임신이 되어서 몸도 힘든 나날이 계속되었다.

엄마나라 베트남, 외할머니 정성 꼭 기억해주겠죠

“한국 사람들이 제 이름 부르는 걸 힘들어 했어요. 그래서 남편 할머니의 성을 따서 시어머니가 지어주셨어요.” 어느덧 두 아이의 엄마, 결혼한 지 10년, 이제는 한국에서 그를 송은영이라는 이름으로 부른다. 가까운 도시에 나가 한글교실에서 한국어를 익히고 몸이 약한 큰아이를 비롯해 작은 아이까지 태권도를 배우게 하면서 건강을 챙겼다. 틈틈이 비닐하우스 오이 접붙이는 일거리를 찾기도 했다. 그에게서 낯선 나라, 한국에 가서 살겠다

고 용기를 냈던 10년 전 모습을 보는 듯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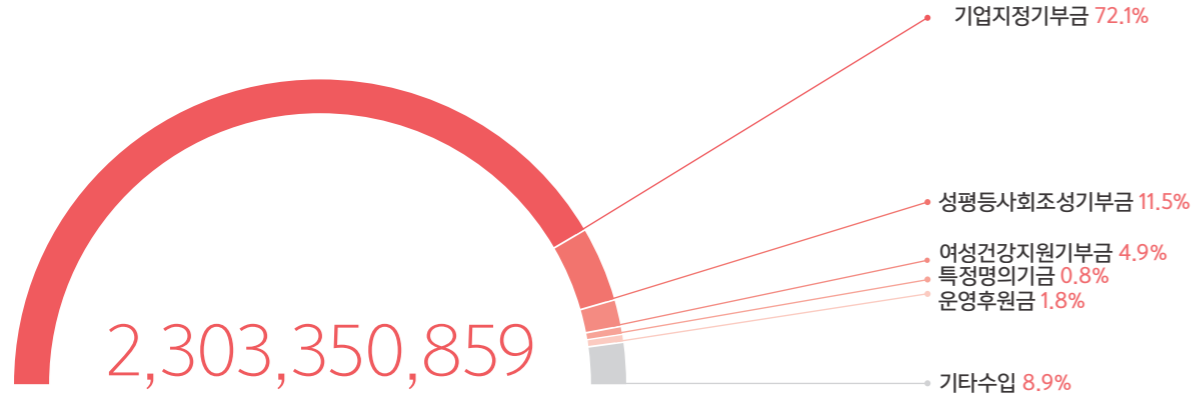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이름을 가르쳐주잖아요. 엄마 이름은 응우엔티떤이야... 엄마가 이름을 바꿨어, 송은영으로! 라고 아이들에게 외우게 했어요.” 베트남어도 때때로 가르쳐주지만 대화할 곳이 없어 금세 잊곤 하니 안타깝기만 했었다. 이번 베트남 방문을 위한 신청서에도 엄마나라의 문화, 언어, 고향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썼을 만큼 기대가 컸다. 방문 전에 아이에게 베트남어로 ‘할머니 사랑해요’라도 가르쳐줄 걸, 엄마가 참 좋아하셨을 거 같다고 아쉬워했다.

한국어가 좀 더 익숙해지면, 아이들이 조금 더 크면 일도 다시 하고 싶다는 송은영님. 그림을 좋아하는 수민이는 더 튼튼하게 자라주길,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지현이가 꿈을 꼭 이루길, 아무 탈 없이 남편이 직장 잘 다니길 바라는 평범한 엄마 송은영님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바람을 더 얘기했다. “엄마나라 베트남과 외할머니의 정성,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도 아이들이 꼭 기억해 주겠죠?” W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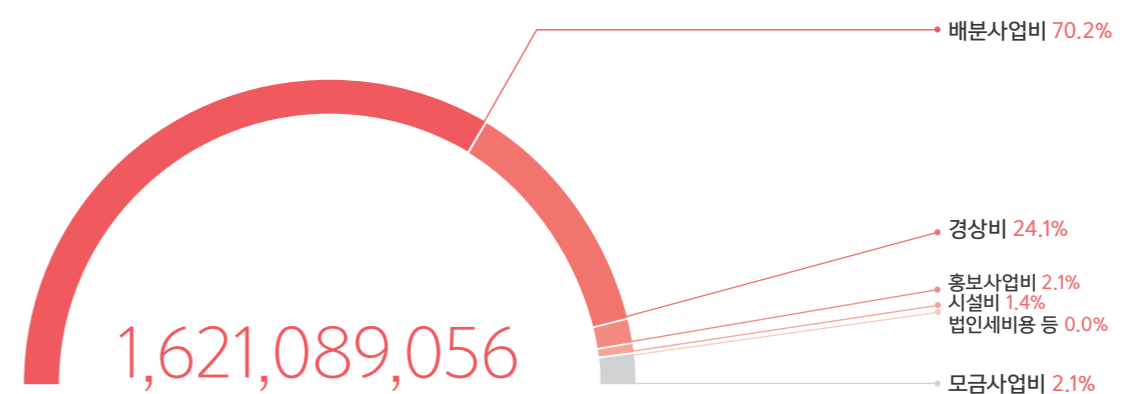
기간
2015.1.1 ~ 2015.10.31



항 목	내 용	금 액 (원)
기업지정기부금	기업, 기관, 단체 등 국내외 지정기탁 사업지원 및 물품기부 등	1,661,607,403
성평등사회조성기부금	100인기부릴레이 기부 여성가장지원 지정기부 만만클럽(폭력없는 세상, 안전한 사회 만들기) 일터(가게)나눔 동전나눔 해피빈 콩기부 싸이월드 기부 카드포인트 기부 등	265,113,754
여성건강지원기부금	건강지원 지정기부금	112,617,050
특정명의기금	고사리손기금(김은하), 봄빛장학기금	18,050,000
운영후원금	개인, 기관의 한국여성재단 협찬 등	40,830,000
기타수입	이자수입, 임대료수입, 캐쉬SOS상환기금 등	205,132,652
총 수 입		2,303,350,859

지출

기간
2015.1.1 ~ 2015.10.31



구분	항 목	내 용	금 액 (원)
고유목적 사업비	모금사업비	모금행사, 기부자관리 등	34,826,0310
	성평등사회조성사업	· 성평등사회조성사업 · 만만클럽사업	
	소외여성 empowerment 사업	· 여성가장 및 활동가, '엄마에게 희망을' 건강지원사업 (CJ모금) ·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삼성생명) · 다문화여성 창업지원사업 (J.P. Morgan) · 미혼모 자립지원사업 (CARL MARKS FOUNDATION) · 양육미혼모 모자가정 건강지원사업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교보생명) · 봄빛장학기금 (봄빛기금)	1,137,603,665
	여성공익단체 및 활동가 역량강화	· 여성NGO장학사업 (유한킴벌리) ·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 지원사업 (캐쉬SOS상환 기금) · 공간문화개선사업 (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 · 여성공익활동가 심프로젝트-짧은 여행-긴호흡 (교보생명)	
운영비	사회적돌봄사업	· 안전안심마을만들기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한화생명) · 지지않는 가족사랑 프로젝트 (시그나사회공헌재단)	
	홍보사업비	소식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행 및 홈페이지, 홍보영상물 제작 등	34,130,514
	경상비	인건비, 수수료, 사무행정비 등	391,492,208
운영비	시설비	건물유지관리비 등	22,324,377
	법인세비용 등	법인세비용	711,982
총 지 출			1,621,089,056

‘창업’의 꿈을 향해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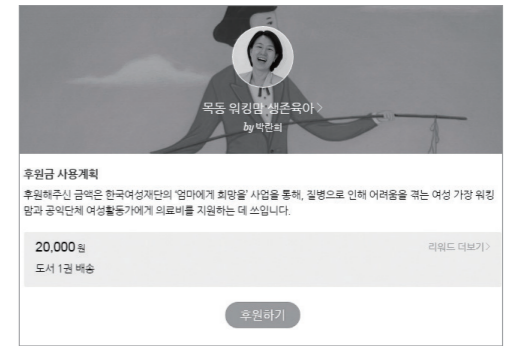


한국여성재단과 J.P. Morgan 후원으로 9월 시작한 <다문화여성 & 저소득층 여성을 위한 창업지원사업 My Future, My Business> 사업 중 10회 창업교육을 무사히 마무리했다. 지난 11월 13일(금), 수료식에서 한국여성재단 이해경 이사장은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기존의 삶과 물리적·정서적 거리가 있는 낯선 장소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선구자다, 창업을 꿈꾸는 다문화여성들의 롤모델’이라고 10팀의 교육과정 수료를 축하했다. J.P. Morgan 박라희 부문장도 ‘타국과 외국어라는 열악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창업 계획을 세운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받았다’며 따뜻하게 격려했다. 수료생 호치완님은 ‘가능성을 믿고 지원해준 한국여성재단과 J.P. Morgan에 감사하다. 교육을 통해 창업에 대한 꿈에 한발자국 더 다가가게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예비 창업팀들은 ‘창업’이라는 막연한 꿈에 대해 무역, 카페, 통번역, 다문화이해 공연 등 팀별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아이템을 기반으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비즈니스 계획을 설립하게 되었다. <다문화여성 & 저소득층 여성을 위한 창업지원사업 My Future, My Business> 사업은 창업교육에 참가한 10팀 중 우수팀 6팀을 선발하여 창업 심화 컨설팅교육, 창업지원금 1,500만원과 함께 창업 후에도 사후관리를 지원하여 창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더 나은 미래> 박라희편집장, 스토리펀딩 후원금 재단에 기부

조선일보 공익섹션 <더 나은 미래> 편집장이자, 두 딸을 둔 워킹맘 박라희님이 스토리펀딩 후원금을 여성재단에 기부했다. 박 편집장은 사교육전쟁터 목동에서 쫓지 않고 워킹맘으로 살게 된 그간의 경험을 담은 <워킹맘 생존육아> 책을 펴냈고 이를 바탕으로 11월13일까지 65일간 스토리펀딩에 연재하여 네티즌들과 공감대를 가졌다. 기부금은 질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여성가장과 공익단체여성활동가의 건강지원사업에 쓰인다.



2015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 최종보고회



지난 11월 15일 ‘2015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 참가가족 23가족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다시 모였다. 지난 9월 5일부터 13일까지 7박 9일간의 일정으로 베트남 하노이에서 진행된 베트남여행 돌아보고 외가방문을 통해 변화한 가족들의 모습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이다. 참가가족을 대표해 김창하님은 ‘아내가 그렇게 많이 웃고 행복해 하는 모습은 처음 봤다’며 ‘아이들이 외할아버지·외할머니의 사랑은 물론 엄마의 문화까지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날 행사는 1부 최종보고회와 2부 인사동 문화체험으로 나누어 진행, 전국 각지에서 모인 가족들이 기쁨과 웃음을 함께 나누고 더욱 끈끈한 유대관계를 형성하였고 한국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뜻 깊은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위대한 리더로의 성장! 이화유한김벌리 여성NGO장학사업 수료식

유한김벌리 후원, 6기 <이화-유한김벌리 NGO여성활동가리더십과정> 수료식이 지난 11월 11일 개최되었다. 수료생들을 비롯 참석자들은 지난 6주 동안 진행된 강의와 네트워크 활동을 뒤 돌아보고 앞으로의 계획들을 함께 나누었다. 정봉수 유한김벌리 부장, 안태건 유한김벌리 부장, 이해경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조성남 이화리더십개발원 원장이 참석하여 본 과정을 통해 더 멋진 모습으로 성장한 30명의 NGO여성활동가들을 격려하고 한국사회의 변화를 위해 기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2015만만클럽, 안전한 사회를 위한 SOS캠페인 진행



정기기부자 확대를 위한 만만 클럽모금캠페인이 SOS캠페인인 것으로 한 달 동안 진행됐다. SOS캠페인은 해마다 증가하는 여성과 아동의 폭력에 경

중을 올리며 서로의 관심을 통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전화모금과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이번 캠페인의 메인 캐릭터 부엉이는 안전 지킴이의 상징으로 이윤기 화가가 직접 그린 것으로 재능나눔으로 참여했다.

총 13개 사업이 진행되었다. 이날은 지난 1년간의 사업의 성과, 다양한 제언을 나누고 공유하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사)미래포럼, 다양성과 포용의 한국사회를 향한 '한국30%클럽' 운동 전개

(사)미래포럼은 지난 11월 25일에 개최한 '한국30%클럽 컨퍼런스'에서 기업 혁신의 최우선 과제로 여성임원 30%를 제안하였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축하서신(임홍재 유엔글로벌 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 대독)을 시작으로 한국 최초의 여성 대법관을 지낸 김영란 서강대학교수와 마리안 담하우그(Marianne Damhaug) 주한 노르웨이 부대사의 축사가 이어졌다. 주제 강연자로 나선 권현지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와 박주근 CEO스코어 대표는 여성 임원 30%를 향한 세계의 흐름을 소개하고 한국의 현황을 분석하고 미래를 전망했다.

패널로는 7개 기업(라이나생명, 롯데그룹, 삼성전자, 샘표식품, 유한킴벌리, 풀무원, 한국IBM)이 참여하여 개별 기업에서의 성별다양성 성과를 공유하고, 여성임원 30%를 위한 과제들을 점검하였다. 기업들은 무엇보다 다양성의 가치를 포함한 기업비전과 여성임원 증진에 대한 CEO의 의지 선언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같이 하였다. 이날 컨퍼런스에 참여한 기업, 학계, NGO 등 각계각층 인사들은 한국30%클럽 취지와 활동에 공감하고 '여성임원 30%' 지지선언을 하였다. (미래포럼 www.meerae.org)

여성재단 하반기워크숍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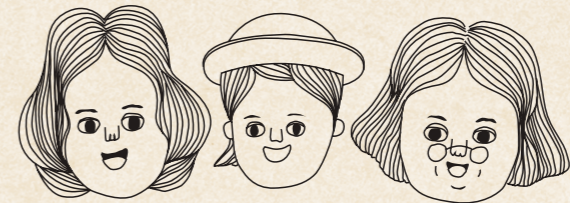


여성재단 하반기 워크숍이 지난 11월 10일 진행됐다. 워크숍은 재단 직원간 소통 기회와 재단의 중장기 발전계획의 주요내용을 공유하고 수렴하는 과정으로 이뤄졌다. 1부는 <여성재단 방향찾기>를, 오후에 진행된 2부에서는 <여성재단과 나, 함께 성장하기>를 주제로 토론과 발표를 이어나갔다.

양육미혼모 모자가정을 위한 공모사업 최종보고회 개최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교보생명 후원, <양육미혼모 모자가정을 위한 공모사업> 최종보고회가 10월 21일에 개최되었다. 우리사회 편견에 맞서 엄마로서 당당하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사회기반을 만들기 위한 '통합healthcare program'과 양육미혼모가정에 대한 차별과 편견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고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사회적 인식개선 프로그램' 등으로 올해

2015 창립기념 후원의 밤 **엄마에게 희망을**



{ **엄마에게 희망을** }

2015 한국여성재단 후원의 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우리 딸들과
누군가의 딸이었던 우리 엄마
이들을 응원하는 일, 한국여성재단이
가장 잘 하는 일입니다.
올해는 엄마에게 희망을 전하는
특별한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가슴 찢어질 엄마의 추억을
곱게 담아 오십시오.
이 시대 엄마들에게 전할 꿈과 희망을
만드는 자리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늘 고맙습니다.

일시 2015년 12월 2일(수) 오후 6시30분
장소 이화여자대학교 ECC관 B4 이삼봉홀

행사일정

- 1부 여는 공연_시 낭송
감사인사 및 내빈 소개
2015년 돌아보기
기부자 소개
- 2부 '엄마에게 희망을' 공연
저녁 식사 및 친교
기부 옥션

사회자 진양혜 홍보대사(아나운서)



기부참여 전화 02-336-6463 **메일** womenfund@hanmail.net
홈페이지 www.womenfund.or.kr
후원계좌 농협 369-17-005283 국민 079-01-0405-971 (예금주: 한국여성재단)

여성 암 환우를 위한 아름다운 손길

Makeup Your Life

아름다운 손길,
희망을 메이크업하다



아모레퍼시픽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는 항암치료로 급격한 외모변화를 겪고 있는 여성 암 환우에게 외모관리 노하우를 전수하여 아름다움을 선물하고, 자신감까지 메이크업 해드리는 캠페인입니다.

아모레퍼시픽 사회공헌포털 웹사이트 <http://makeupyourlife.amorepacific.com>